

韓國保健教育學會誌 第14卷 1號(1997. 6)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Vol. 14, No. 1(1997)

학교 성교육 효과

장영미·이시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목 차

| | |
|--------------------------------------|----------------------------|
| I. 서론 | V.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상의 원칙 |
| II. 학교 성교육 발전 과정 | VI. 결론 |
| III. 학교 성교육의 효과 | 참고문헌 |
| IV. 학교 성교육 효과에 대한 영향 요인 Framework | 영문초록 |

I. 서론

성이란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기본적인 욕구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성생활의 노출을 금기시 해 왔고 사회 규범과 법적으로 공인된 결혼이라는 특정한 환경에서만 허용되어 왔다. 따라서 성의 문란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못하는 부분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김한경, 1983)

그러나 이러한 성과 관련된 사회규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통적 가치관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붕괴되어 가는 현상을 빚게 되었는데, 그 배경은 자유 민주주의 사상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 행위가 더욱 자율화됨에 따라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유교의 힘에 의

해 기존의 가치관이 유지되고 지탱되어 왔지만 사회 변동에 따라 구미의 개인주의 사상의 영향과 민주화, 서구화, 산업화 추세에 따른 영향으로 개방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성에 대한 가치관도 크게 변화하는 현상이 야기되었으며 심지어는 성의 향락적 소비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또한 무분별한 성매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도처에 산재하고 있어서 성의 자유해방 의식뿐만 아니라 성적 탈선과 성범죄 발생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사생아 출산 등의 성도덕과 관련된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대두되게 되었다.(이중환, 1989)

매년 AIDS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1996년 한 해의 10대 뉴스에 지목될 정도로 큰 충격을 준 여중생의 출산 사건과, 원인이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되어,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각급 학교에 성교육을 실시 강화하라고 시달할 정도로 정부 당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성교육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막상 성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면,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 어느 연령에서 성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적합한가? 성교육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실시해야 하나? 과연 그 목표는 실현 가능한 것인가? 성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가? 성교육 실시를 둘러싼 학부모 및 기타 사람들의 반발은 없는가? 성교육은 성적 위험 행위를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가? 등등의 많은 논의들이 있을 수 있겠다. 사실 학교 성교육을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해 왔으나, 서구 사회에서는 조직적인 소수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서 교육과정에서 배제된 경우도 있었다.(Eberst, 1981; Pollock, 1987)

이러한 논의 사항들은 주기적으로 찬성과 반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찬반의 논의들은 전반적으로 하나의 논제로 귀추 될 수 있다. 즉, 학교 성교육이 청소년에게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다.

효과적으로 학교에서 성교육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 성교육 효과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여 반영한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교육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식·태도·요구도에 대한 조사는 실시되었으나 성교육 효과에 대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성교육에 대한 논의들과 성교육 실시에 따른 효과와 방법론적인 평가 및 개선 방향은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검토해야 할 단계의 사

업으로 생각된다.

1. 연구 목적

(1) 일반적 목적

학교에서 성교육을 유도해 나가기 전에 학교 성교육의 효과에 대해 검토하고, 각 논의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하여, 학교 현장에 효과적인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일반적인 목적이다.

(2) 구체적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성교육 발전 과정을 철학, 내용, 방법, 논의 등에 대해서 시대별로 고찰한다.

둘째, 학교 성교육 효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견해를 고찰한다.

셋째, 학교 성교육에 대한 실험 연구 결과들을 고찰한다.

넷째, 학교 성교육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 및 방법에 대한 논의들을 고찰한다.

다섯째, 효과적인 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Framework을 구조화시킨다.

여섯째, 효과적인 성교육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 연구 방법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성교육과 관련된 지식·태도·요구도에 대해서는 다수의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성교육 효과에 대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존의 외국 문헌을 중심으로 성교육 효과에 대해 고찰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ramework을 구조화시키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II. 학교 성교육 발전 과정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부터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주제를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이런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Yaber, 1981; Goldman & Goldman, 1982; Pollock, 1987)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성교육은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가정 또는 학교 어느 곳에서 주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고, 그 밖에 어느 연령부터 가르쳐야 하는지?, 또는 어떤 내용이 적합한지? 등의 성교육을 둘러싼 각종 논의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Fraser, 1972). 성교육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은 오늘날 새로이 발생된 문제가 아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건 교육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영역이다. 그 이유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사회적·영적인 인간의 전반적인 차원에다 초점을 둔 통합적 접근 방법이기 때문이다.(Nolte, 1984) 또한 사람들은 치료에는 관심이 많이 있지만 예방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 교육을 둘러싼 찬 반론은 오랫동안 같은 주제나 유사한 주제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 주제들을 살펴보면 성교육 이외에도 약물중독, 근친상간, 성학대, 성병, 죽음과 임종(자살) 등이 있다.

이러한 특정 주제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거나

삭제해 버리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런 교육 내용상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주된 요인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하는 강도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특정 시기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관의 변화로 예측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그 철학과 내용, 교육 방법이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발전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정 주제에 대한 역사적 관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그 이유는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반대를 예견해서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더 깊이 연구하여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확고하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Nolte, 1984; Pollock, 1987)

1. 우리나라의 학교 성교육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그 필요성이 일찍부터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순결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서서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80년대에 들어와서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주장되었으며, 학교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성교육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용어도 순결교육에서 성교육으로 바뀌는 등 획기적인 의식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성교육 교재도 편찬하게 되었다.(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1982; 인천직할시 교육연구원, 1982; 부산직할시 교육연구원, 1982;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1983; 전광문, 1983; 최윤식, 1984)

1970년대만 하더라도 성교육 목표나 성교육 내용이 과학적으로 검토된 단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약점이 많았다. 전광문(1983)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성에 대한 지식 특히 성기의 구조와 기능을 어린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성기 교육」이며 이는 매우 해롭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도를 한다고 해도 여학생 대상의 초경이나 월경 생리, 남녀의 역할, 가정 윤리 등 일부에 국한되어 있었고, 자위행위, 사정, 성교, 피임 등의 내용은 전혀 고려될 수 없었다.

둘째, 초·중·고교를 통해서 모든 성관계는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혼전 성관계는 부정되었다. 따라서 남녀 교제에 있어서 포옹은 인정될 수 없으며, 성욕의 자제에 초점을 두었다.

셋째, 개인의 성행동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사결정이 아니고 사회적 규범을 우선시 하였다. 따라서 전통적, 종교적, 성규범으로서의 성도덕, 성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임신한 여학생을 처벌하고 비난을 하지만, 상대 남자의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이러한 종래의 성교육에 대한 사회의 태도로 성교육을 실시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성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인정됨에 따라서 종래의 순결교육에 「성교육」이란 용어가 대두된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 성교육계에서 논의되고 거의 일치될 보이는 성교육의 이념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성은 오랫동안 종교적인 계율이나 타부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다. 이에 반하여 현대의 성교육은 명백한 사실을 존중하고 과학적 지식을 제공한다.

둘째, 현대의 성교육은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 노인, 심신장애자 등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성적 존재로서의 인격적·성적 인간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셋째, 개인의 성적인 표현과 행동은 기존의 권위와 도덕에 의해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현대의 성교육은 타인의 권리와 복지에 피해를 입히

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전광문, 1983)

순결교육과 성교육의 개념을 비교해 보면, 순결교육이란 전통적 유교 사상에 의거한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성윤리에 바탕을 두고서 남녀에게 서로 다른 이중 구조적 성도덕관을 강조한 남녀 불평등 사상의 상징으로 볼 수 있으며, 성교육은 남녀의 인권 평등과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에 입각한 의식의 입장이라는 데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순결교육은 1978년에 발간된 「순결교육자료(장학자료 제 2호)」에서 그 면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일부 문제를 가진 학생을 지도하는 자료와 여성의 순결만을 의식한 자료만 그 내용으로 다루고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활기를 띠었던 성교육은 점점 열기가 식어 가다가 1996년 10대 여학생들의 출산 사건과 성폭력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됨에 따라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그 결과로 정부 차원에서의 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학교 현장에서의 성교육을 실시 강화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활기를 띠게 되었다.

2. 미국의 학교 성교육

1) 시대 분류별 성교육 철학, 내용, 방법

미국에서의 학교 성교육의 시대적 발전 상황을 분류하면 표 1과 같이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첫 시대는 1890년대와 1900년대에서 일어난 초기 성교육 운동, 두 번째 시대는 1940년대 이후이고, 세 번째 시대는 1980년대 이후이다.

1900년대에서의 성교육은 전통적인 성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었다. 이 때의 성이란 결혼해서 자손을 이어나가는 수단이고, 성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가치관

이었다. 학교에서 성교육도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가르쳤고 여학생의 성교육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성교육을 학교 또는 가정 어느 곳에서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두 번째 시대는 장기적으로 개인이 성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시기로서, 성교육 내용으로 인간관계와 개인의 발달을 고려하게 되었다. 1940년대의 성교육은 “사회 위생(Social Hygiene)”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었다. 독립 교과목으로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어, 많은 경우에 성교육을 “가정관리(home making)”, “품성 기르기(character building)” “도덕적·영적 가치(moral and spiritual values)”, “정신 위생(mental hygiene)”이라는 제목으로 가리워서 실시하였다. 거의 모든 성과 관련된 주제는 남녀 분반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단점이 있기 하나, 성교육에 대해서 부적절한 관심을 유도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세 번째 시대는 앞의 두 시대와 비교해서 획

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비해서 성에 대한 관대함과 개방성이 증가하고, “새로운 성(new sexuality)”은 “새로운 성교육(new sex education)”을 낳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의 성교육에 영향을 주었다. 이 “새로운 성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을 완성하는데 성은 중요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둘째, 남녀 합반으로 하여 모든 유형의 용어를 이용하여 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사 소통한다.

셋째, 피임법을 상세히 논한다.

넷째,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기르는 목적을 강조한다.

다섯째,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토의하도록 할 수 있는 교수 기법을 이용한다.

여섯째, 성교육 교사의 연수를 위해서 노골적인 영화를 활용한다.

일곱째, 성의 가치를 강조한다.

여덟째, 양성애와 동성애와 같은 생활 습관 선

<표 1> 학교 성교육의 시대 분류별 발전 과정

| 시 대 분 류 | 1900년대 | 1940년대 | 1980년대 |
|----------------|---|--|---|
| 시 대 풍 조 (tone) | 성행동이나 성표현에 반대하고, 성관계를 적대시하는 분위기(anti-sex) | 도덕주의(moralistic) | 도덕상의 문제로 일방적으로 개인적 판단을 피하는, 개인주의 풍조(nonjudgmental, individualistic) |
| 목 적 | 성적(sexual) 행위와 사고를 급함 | 가족 생활을 위해서 건전한 성(sexuality)을 장려함 | 개인의 성장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건전한 성(sexuality)을 발달시킴 |
| 내 용 | 성관계의 위험, 해부학, 생리학, 우생학 | 가족 생활, “정상적인” 성, 생식(reproduction)(동식물, 인간), 성병 | 전 범위 유형의 성표현, 성관계, 피임, 대안적인 생활습관, 개인의 가치와 성 |
|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 강의, 가능한 한 프린트 유인물로 제한 | 강의/토의, 프린트물, 시각자료, 영화 | 학생 토론에 중점, 가치 명확화, 역할극, 영화, 표본 인물, 모든 유형의 시청각 자료 |
| 성별 학급편성 | 소집단-보통 남학생만 | 거의 모든 주제에서 동성으로 편성한 성교육 수업 | 남녀 혼성으로 편성한 성교육 수업 |

택에 대해서, 도덕상의 문제로 일방적인 개인적 판단을 하는 것을 피하는 방식의 토론을 한다.

아홉째, 특정 욕구를 가진 사람들(정신적·신체적 장애인, 노인)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Penland, 1981)

표 1에서는 학교 성교육의 발전 과정을 시대 분류별로 시대 풍조, 목적, 내용, 교육 방법 및 교육 자료, 성별 학급편성을 제시하였다(Penland, 1981).

2) 시대 분류별 학교 성교육 논의

먼저 미국의 학교 성교육에 대한 논의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1차 대전 직후에 혼전 임신율과 성병 발생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American Social Health Association은 대중에게 성병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은 오직 문란하고 나쁜 사람들만이 이런 병에 걸린다고 믿고 있었고, 성과 관련된 용어들은 가정 생활, 법, 질서의 대파괴를 유발시켜 성도덕성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학교가 노골적으로 성을 가르치기에 합당한 장소인가?”하는 것이 미국 내의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캠페인의 일부 내용이었다.(Pollock, 1987; Kirby et al, 1994)

이런 대중의 목소리로 인한 결과로 학교에 영향을 주게 되어, 같은 해에 생식(reproduction)과 정상적인 성장 발달 또는 성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은 모두 커리큘럼 내용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성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로 하여금 학부모의 서면화된 허가서를 받아 오도록 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교사는 파면되기도 하였고, 교장과 행정가는 해임되거나 전출되기도 하였다.(Goldman & Goldman, 1982; Pollock, 1987)

그러나 1950년대와 1960년대 중반기와 후반기에 성교육을 선호하는 부모들이 행정가와 교사

들을 후원했기 때문에 서서히 성교육 과정의 확산이 이루어졌다. 1960년대 후반기까지 많은 성교육 과정이 발전하게 되었다. 일부 교육과정은 오직 하나의 주제 즉, 월경 같은 주제를 다루었고, 다른 일부의 교육과정은 성적 기능과 행위와 관련된 많은 주제들을 결합시키기도 하였다. 1960년도 후반기에는 많은 보건교육 전문가들이 성교육(sexuality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가정생활 교육(family life education)”이나 “인간의 성장과 발달(human growth and development)” 등의 완곡어법의 용어를 사용하여 성교육을 실시하였다.(Eberst, 1981)

그러나 성교육에 대한 일부의 반대가 여전히 있었고, 방법론과 내용에 대한 논의도 계속 남아 있는 상태였다.(Pollock, 1987)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에 대한 장애가 여전히 놓여 있었고(Scales, 1980), 교사가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교사들은 이 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었다.(Gilbert, 1979; Ryan & Dunn, 1979) 사실 1980년대 중반기에서조차도 단지 몇 명의 부모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일어날 때마다 학교 교과과정에서 성교육은 배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기에 AIDS의 발생이 상당히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질병 관리뿐만 아니라 대중 교육과 학교 교육을 통해서 AIDS를 어떻게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성교육 과제가 나타났고 두려움과 혼란조차도 야기시키게 되었다(Pollock, 198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40년대 이후로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미국인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소수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서 많은 논란이 주

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러한 주기적인 논의의 발생으로 인하여 일관성 있는 성교육의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잘 알 수 있다(Hale & Pillber, 1978; Pollock, 1987).

3. 기타 국가의 성교육

이외의 다른 국가들을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도 미국과 똑같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교과과정 편성에 대한 문제는 실제적으로 지방 교육 당국에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과 교육 활동을 이끌어 나갔다고는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어느 연령에서부터 실시해야 하는가?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것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학교나 아니면 부모에게 맡겨 두어야 하는가 하는 양분된 논의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고는 있으나 미래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이상의 선진국과는 대조적으로 의무교육 과정으로 성교육과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교육은 1956년에 시작하였고, 그 내용이 1977년에 대폭적으로 개정되어 7-16세를 위해서 외적인 성 차이, 성기관의 구조와 기능, 월경, 성교, 자위행위, 피임, 수태, 임신, 출산, 불임, 입양, 노출증, 어린이에 대한 이상 성욕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Eberst, 1981; Gordon, 1981; Goldman & Goldman, 1982; Pollock, 1987).

Ⅲ. 학교 성교육의 효과

1. 학교 성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 효과

1) 긍정적인 기대 효과

많은 학부모, 학생, 교사, 보건 조직, 기타 교육 전문가 및 보건 전문가들은 성, 인간관계, 성장 발달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성교육 교과과정이나 관련 교과목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지난 30년간 이러한 교육 내용에 대해서 조직적인 소수 집단의 강렬한 반대가 있었을 때에도 국소 지역이나 전국 수준에서 성교육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었다(Scales, 1980; Pollock, 1987).

미국에서 조사한 성교육 지지도를 살펴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65%-80% 정도였으나, 1985년 후반기에는 85% 이상으로 지지도가 증가하였고, AIDS에 대한 보건교육은 94%의 지지도를 나타내었다(Synder & Spreitzer, 1976; Eberst, 1981; Gordon, 1981; Turner, 1983; Kirby, 1992; Welshimer & Harris, 1994).

이러한 성교육을 지지하는 여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성교육의 주요 기대 효과는 청소년들이 제 또래들과 책임을 맡고 있는 어른들과 함께 성의 역할에 대해서 탐구하고, 성과 성문제 등에 대해서 부모와 함께 개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준다는 것이었다. 또한, 성병, 원치 않은 임신, 혼전 성관계, 기타 많은 성문제가 청소년에서 계속적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성교육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학교 성교육은 이런 문제를 감소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학부모와 대중의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들은 보건, 의학, 교육 부문의 전문가가 내놓는 보건 교육 커리큘럼의 일부분으로 성교육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정책과 입장 진술에 의해서 고양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책과 입장 진술에서는 성교육이 성과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한 만병통

치약이라고 제시하기보다는, 성에 대한 각자의 태도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탐구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학생들 자신들의 성적 발달을 스스로 이해하도록 하고 성과 관련된 행위를 선택함에 따른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며, 또한 가족과 함께 성문제에 대하여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 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었다(Pollock, 1987).

2) 부정적인 기대 효과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여러 가지 부정적 신념을 둘러싸고 일어났는데,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녀의 성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학부모의 교육자적인 본질적 역할을 학교가 빼앗아 갈 것이다.

② 성 교육 과정은 학생에게 어떻게 성관계를 갖는가를 오히려 가르쳐 주는 것이 된다.

③ 생식, 성, 또는 성기관의 해부학적 정보는 오히려 역효과적으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성 행위를 실제로 실험해 보도록 자극시킬 것이다.

④ 성교육은 "무책임한 행위"를 조장할 것이다.

⑤ 성교육 과정이 실시된 후에는 학생들이 성적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대담해 질 것이다.

⑥ 성에 대한 학습은 학생들이 성관계를 갖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성관계를 갖도록 조장할 것이다.

⑦ 성병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문제를 피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더 문란해 질 것이다.

⑧ 성교육 내용에는 항상 피임 방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문란을 조장하는 또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된다.

⑨ 낙태가 피임의 주된 방법이라는 것을 학생

들은 배울 것이다.

⑩ 교사는 학생들의 가족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성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킬 것이다.

⑪ 동성애가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거론되고 옹호될 것이다(Scales, 1980; Eberst, 1981; Pollock, 1987; Furstenberg et al, 1985).

이러한 부정적인 신념들은 학부모의 종교적 배경과 정치적 목적, 부모 권리에 대한 문제에서 발생된 것일 수 있다. 어떠한 사람도 성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는 사람은 없다. 대개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심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다(Pollock, 1987).

2. 학교 성교육 효과에 대한 실험 연구

1) 부정적인 기대 효과와 대립되는 연구 결과

전술한 학교 성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문제는 과거 20년 동안에 걸쳐서 실시된 전향·후향 연구들을 조사 검토한 연구들에서 얻을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성교육의 실시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관지을 수 있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밝히고 있지는 못하였더라도, 10대의 청소년과 성인의 책임 있는 행위가 증가하였다는 일부 중요한 자료들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 결과의 일부는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학교와 가정 어느 곳에서 성교육을 받았던 간에, 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짐에 따라, 성관계를 시험삼아 해 보는 등의 행위를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첫 성경험을 증가시키거나 그 연령이 낮아지는 것과는 관련이 없었다. 오히려 첫 성경험 연령을 늦추었다.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 기준은 학령기에 도달하기 전에 형성되는 것이다(Zelnik & Kim, 1982; Zabin et al., 1986; Pollock, 1987; Kirby et al, 1994).

둘째, 성범죄가 성교육을 받은 대상 집단에서 증가하지 않았다. 많은 비율의 성범죄는 성정보가 부족한 환경과 성과 성적 억압에 대한 무지가 우세한 지역의 사람들이 저지른다는 것이다.

셋째, 성교육 실시 후에 성행위에 대한 생각이 더 대범한 양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더 관대하게 되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더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Pollock, 1987; Kirby, 1994).

넷째, 피임을 주제로 다룬 성교육을 실시한 뒤에는 청소년의 성태도와 행동은 높은 책임 수준을 나타내 보였다. 지역사회와 혼전 임신율이 감소되었다.(Zelnik & Kim, 1982; Kirby, 1985; Zabin et al, 1986) 이러한 것은 피임약의 이용이 증가되었고, 학생들이 공공연히 성욕에 대해서는 논하고 또래의 압력에 저항해서 일반적으로 성관계가 감소된 결과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섯째, 성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부모와의 성에 대한 의사 소통 통로를 열었다. 이러한 대화를 하는 부모와 학생들은 성에 대해서 훨씬 긍정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고, 더 자아 존중감을 보이고, 충동적인 성행위를 제한하였다.(Albee et al, 1983)

여섯째, 성에 대한 그릇된 신념과 신화는 성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서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Wattleton, 1987)

일곱째, 1970년대에 10대 미혼 임신에 대해서 성교육과 관련지어 단기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한 그 지역에서 임신자 수가 감소되었다.(Last, 1987)

그리고 혼전 임신율의 인종적 차이가 감소되고 있다고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당초 흑인과 유색인종의 임신율은 백인에서 보다 통계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성교육을 포함하여 소수 집단 학생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임신율은 감소되었다(Furstenberg et al, 1981; Cancila, 1985). 성병과 원치 않는 임신은 성교육 받은 사람보다 받지 않은 사람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다. 국제 비교 연구에서 성교육이 제공되지 않는 나라에서 임신율이 상당히 높았다(Last, 1987).

여덟째, 성관계를 갖고 있는 10대 학생들 중에서 포괄적인 성교육을 받은 학생은 더 지속적으로 피임을 하고 있었다(Wattleton, 1987).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무책임한 성행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반대되는 성교육의 효과로 해석된다.

2) 긍정적인 기대 효과와 대립되는 연구 결과

성교육자와 연구자들이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들이 지식은 증가시키나, 가치, 태도, 행위 즉 성행위, 첫 성경험 시작 연령, 피임약의 사용, 임신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기대 효과와 대립되는 연구 결과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부분적인 소수의 연구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연구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Parcel et al, 1979; Kirby, 1980, 1985, 1992; Zelnik & Kim, 1982; Obstfeld & Meyers, 1984; Furstenberg et al, 1985; Dawson, 1986; Stout & Rivara, 1989; Kirby et al, 1994; Oakley et al, 1995; Jacobs & Wolf, 1995).

성교육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에서의 여러 다른 주제들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교육은 효과적으로 지식을 증가시키기는 했으나, 대부분 태도, 행위를 변경시키는데는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영양 지식과 운전

지식은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식생활의 변화나 자동차 사고의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Berberian & Gross, 1976; Robertson 1980; Byrd-Bredbenner et al, 1984) 왜 교육은 지식은 증가시키나 효과적으로 행위를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하는 논의는 끊임없이 토의 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Kirby, 1985)

3.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 효과 평가 기준 및 방법

1) 목표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해서 교육자들 간의 견해가 다르다. 이러한 견해들은 3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 어떤 교육자들은 학교의 역할을 제한된 전통적인 역할로 보고 있다. 즉 학교는 지식과 기술(skill) 습득에 초점을 두어야지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행동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로는 성교육과 AIDS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지식과 기술을 변화시키는데 성공했는가 그 여부를 가지고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성행위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교육 효과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된다.

둘째, 다른 교육자들은 학교는 지식과 기술을 증대시키는 것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임신, 성병, HIV의 감염을 감소시키는데 지나치게 중점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교육자는 성교육 프로그램은 가치 명확화, 사회 기술 증진, 자아 존중 향상, 감정 표현 학습, 성에 대한 의사 소통 시 편안함 증진, 성에 대한 착취감 감소, 성역할

에 대한 재개념화 등의 폭넓은 범위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또다른 일부의 교육자와 많은 보건 전문가들은 많은 청소년들이 성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 행위에 가담하기 전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 기관이 학교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학교 성교육의 목표를 확장시켜 학교 밖의 위험 행위를 감소시키는 것을 교육 목표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 목표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이에 따라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약하면, 지식·태도·행위 변화 등의 3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밖에서 취하는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 즉, 청소년의 성행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지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과는 훨씬 다르고 모호한 과제이고. 또한 다른 방법의 평가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다른 교과목을 예로 들면, 영어 수업의 효과는 캠퍼스 밖에서 영어를 말하는 것으로 영어 능력 향상을 측정하여 평가하지는 않는다. 공민 수업의 효과는 법을 수호하는 학생의 행위로 측정하여 평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무책임한 성행위, 임신, 성병 등의 감소를 학교 성교육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은 다른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기준보다 훨씬 평가하기가 힘들고 비현실감마저도 들게 할 수도 있다.(Kirby, 1980, 1992; Obstfeld & Meyers, 1984)

2) 성교육 프로그램 - 교실 수업 중심

(1) 5개 그룹의 프로그램 발전

Kirby(1992)는 미국에서 그 동안에 실시해 온

15-20년간의 중·고등학교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5개 그룹의 세대(generation)로 대별해서 성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대해서 실시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 5개 그룹의 프로그램 중에 어떤 그룹의 프로그램들은 이전 프로그램 그룹에서 진보된 것이다. 그래서 이 그룹들을 세대(generation)로 표현하였고, 프로그램 그룹별 효과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식을 증가시키고, 임신의 위험과 결과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

제 1세대(generation) 성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성관계, 임신, 피임 방법, 임신율, 출산으로 인한 결과 등에 대한 지식을 학생들이 많이 갖게 된다면, 무책임한 성관계를 갖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전제를 둔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로는 청소년의 지식은 증가되었으나 행위에 변화(피임, 임신, 성관계)가 없었다.

② 많은 지식 내용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가치 명확화와 기술, 특히 의사 결정 기술과 의사 소통 기술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

제 2세대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첫 번째 세대에서 점진적으로 진보된 프로그램으로 가치가 명확하게 되고 의사 결정 기술이 개선된다면, 위험 행위를 피할 것이고, 파트너와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할 것이라는 점에 전제를 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다소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는 있지 않으나, 성관계를 갖는 연령을 늦추거나, 무책임한 성행위를 감소시키고, 10대의 임신을 감소시키는 등의 두드러진 효과가 없다는 점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③ 혼전 금욕 프로그램

제 1세대, 제 2세대에서 진보된 것은 아니나

현재의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나 개발되어 나온 프로그램으로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중적인 태도를 피하기 위해서 금욕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피임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다. 피임에 대한 학생들의 정보 부족 등으로 문제가 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프로그램이다.(Goodson & Edmundson, 1994; Jacobs & Wolf, 1995)

연구의 제한점은 있으나 발표한 몇 개의 논문에서 첫 성관계 연령을 늦추어 준다거나 성관계 빈도를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HIV/AIDS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의 성행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전술한 3개 그룹의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진보된 것이다. 처음에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성공과 실패를 토대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아니었다. HIV/AIDS에 대한 그릇된 신념을 수정하면 행위에 대한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데 가정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HIV 감염과 전파에 대한 그릇된 정보, 불필요한 공포를 감소시키고, 청소년의 성관계 연령을 늦추고, HIV에 감염될 수 있는 성관계를 갖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성관계(safer sex)를 갖도록 하며, 약물 사용을 피하게 하고, HIV에 감염된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동정심을 갖는 등의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연구 결과에서 HIV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었고, condom 사용이 증가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AIDS예방 프로그램이나 매스컴, 기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아 학교 성교육의 효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⑤ 기타 성교육 프로그램 및 평가 연구

다른 보건 분야에서 효과를 입증하는데 사용하는 이론적인 접근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과거 성교육 프로그램의 성공과 실패를 토대로 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고, 더욱 엄격하게 연구들을 평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교육 방식보다는 소집단으로 나누어서 토론과 역할극을 통해서 지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청소년 또래 학생을 훈련시켜서 지도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이용하는 이론들은 Health Belief Model(HBM), Social Learning Theory, Cognitive-Behavioral Prevention Model 등이다.

(2)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특징

Kirby et al(1994)은 학교 성교육 효과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을 재평가하였다. 그 결과는 일관성 있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검토한 연구들 중에서 성관계를 갖는 연령을 늦추어 주거나 피임 방법의 사용, 성위험 행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특징과 비효과적인 프로그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특징

첫째, Social Learning Theory, Social Influence Theory에 이론적인 바탕을 둔 프로그램

둘째, 목표를 좁게 정해서 특정 성위험 행위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셋째, 무책임한 성행위의 위험과 이런 위험 행위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경험 학습 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내면화하는 방법

넷째, 성행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영향과 압력, 매스컴의 영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

다섯째, 무책임한 성행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개인의 가치관과 집단의 가치관을 연령과 경험에 알맞게 강화시키는 프로그램

여섯째, 성행위와 관련된 거절하는 기술 (communication, negotiation, refusal skill)과 이러한 기술에 대한 확신을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 프로그램(role-playing, written practice) 등이었다.

② 비효과적인 프로그램의 특징

첫째, 폭넓은 주제와, 가치(value)와 기술(skill)을 많이 다루고는 있으나, 무책임한 성행위를 피하는데 필요한 특정 정보, 가치, 규범, 기술들을 강조하지 않는 프로그램이었다. 목표가 많으면 비효과적이었다.

둘째,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모범적인 모델 상황이 적용되었는데,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행위 가치와 규범들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학생들이 의사 결정을 하면서 은연중에 배우도록 하는 의사 결정 모델을 이용한 프로그램들이었다.(Kirby, 1992, Kirby et al, 1994)

성교육의 목표는 잘 의도된 것들이겠으나, 이러한 목표에 따른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는 실험 연구들은 부족했다.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먼저 설정되고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험 연구를 뒷받침으로 한 성교육의 타당한 목표 및 내용을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성교육 자료 내용간의 차이를 연구한 것은 더욱이 부족한 현실이다.(Kirby, 1980, 1985, 1992; Obstfeld & Meyers, 1984; Stout & Rivara, 1989; Kirby et al, 1994; Oakley et al, 1995; Jacobs & Wolf, 1995)

③ 포괄적인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 - 다양한 방법의 교육 활동

수업 형태나 개별 상담 방식으로 친구들을 지도하도록 또래의 동료 학생들을 철저히 훈련시켜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효과적인 상담자의 역할을 하게 하고, AIDS 환자가 직접 출현하는 감동적인 영화 상영, 학교 집회나 학교 보건 강연회, 성문제에 대한 주말 토론회, 설문 조사, 학교 소식지를 통한 정보 제공 등의 폭넓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 방법론상의 제한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이러한 다양한 방법의 교육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평가 연구에서 성과 관련된 행위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Kirby, 1992; Kirby et al, 1994).

④ 평가 방법

학교 성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들은 학생의 지식·태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으나 문헌 고찰에서 나타난 것은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Kirby, 1980, 1985, 1992; Kirby et al, 1994) 이러한 결과는 평가 방법론적인 문제에 의해서 비롯된 것일 수 있고, 진정한 교육 효과의 부족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겠다.

Oakley et al(1995)이 성교육 효과 연구들에 대한 방법론상의 평가 연구들을 실시하였는데, 73개 연구들 중에서 12개만이 방법론상으로 합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중에서도 오직 2개 논문만이 성교육의 영향을 밝히고 있었다. 방법론상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살펴보면, 무작위 할당 대조군(control group)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전 사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누락된 자료

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

Jacobs & Wolf(1995)은 성교육 효과 연구들의 방법론상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 번째는 평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이다. 그러나 성교육 연구들에서 성교육의 목표, 프로그램 구조, 수업 시간수, 포괄성, 교사, 이론적인 배경 등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모두 하나의 성교육이라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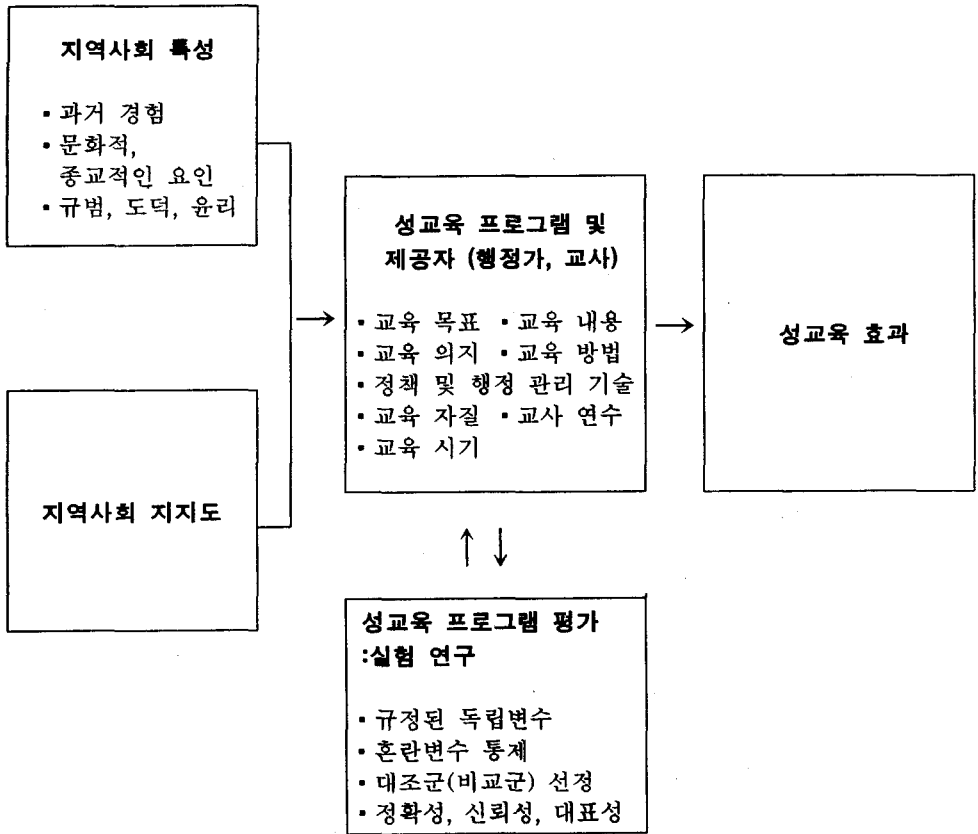
두 번째는 지식·태도 특히 행위를 측정할 때 자기 기입식, 과거 회상식 설문지를 이용한다. 현재로서는 이 방법 이외에 적당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나, 문제는 성과 관련된 지식·태도·행위에 대한 설문에 응할 때, 조심해서 답하거나 잊어버려서 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학교 성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려고 할 때 학교 이외의 여러 지역사회, 매스컴, 또래 문화, 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성 지식·태도·행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교 성교육의 영향력으로 인한 결과를 정확하게 밝히기 힘들다는 것이다.

IV. 학교 성교육 효과에 대한 영향 요인 Framework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틀로 구조화시키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바꾸어서 표현하면 이런 요인들은 효과적인 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 되겠다.

과거의 경험, 문화적 종교적 요인, 규범, 도덕, 윤리 등의 지역사회의 특성이 지역사회의 지지도로 나타나고, 아울러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시 및 평가 연구에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전



<그림 1> 성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 Framework

반적으로 성교육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V. 학교 성교육 효과에 대한 문제 개선 방안

1. 논의의 여지가 있는 교육 주제를 학교 교육 도입 시의 일반적인 원칙

성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논의의 여지가 있는 교육 내용을 학교 커리큘럼에 도입할 때 명심해 두어야 하는 원칙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들은 지역사회의 지지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략이 또한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과 교육활동(service)은 항상 가능한 한 현재 널리 인식되고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오늘날의 이러한 지식은 내일의 신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염두해 두어야 한다.

② 각 학생은 고귀한 존재로 존중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 행위의 탓으로 돌려 비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③ 모든 건강 증진 교육 자료는 통합된 프로그램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가 자신들을 위한 바람직한 행동을 취사선택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중점을 둔 것이어야 한다.

④ 학교나 지역사회에서의 보건 서비스 경험

을 교육 활동에 통합시키는, 즉 교실이나 지역사회에서 건강 증진 효과가 검증된 실현 가능한 교육 활동들을 통합시키는 것은 보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유용할 것이다.

⑤ 논의의 여지가 있는 교육 주제들에 대해서는 교사 및 행정가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⑥ 충분히 자격을 갖춘 교사가 교육을 실시한다.

⑦ 관련 당사자들을 모두 참여시킨다. 즉,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통된 화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자문을 구하고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한다. 전문가만 위원회로 한다는 생각은 지양하고 일반인을 포함시켜 합의를 유도하도록 한다.

⑧ 지역사회와 대상 학생들의 요구도(지지도)·지식·태도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⑨ 청소년에게 유용한 수많은 정보와 영향을 주고 있는 방법으로서 5가지의 "P"를 염두해 두고 있어야 한다. 즉, 부모 교육(Parent education), 또래 교육(Peer education), 대중매체 교육(Public media education), 공립학교 교육(Public school education), 대중 보건 교육(Planned public health education) 등이다.

⑩ 보건 교육자 자신만이 직접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문성에 대한 소유 의식을 지양한다. 여러 가지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한다.(Scales, 1980; Cortese, 1981; McNab, 1981; Eberst, 1981; Pollock, 1987; Neutens, 1992)

2.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상의 원칙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하여 실시한다.

② 잘 훈련된 교사와 요원이 가르친다. 따라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③ 논란이 되는 현안 문제는 토론에 의해서 의사 결정한다.

④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실시한다.

⑤ 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든 청소년들과 공통적으로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

⑥ 그 지역 및 청소년 문화에 합당하게 특수하고, 정서에 맞고, 적절한 언어로 실시한다.

⑦ 성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문화적 압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다.

⑧ 무책임한 성행위에 대해서 거부하는 가치관과 집단 규범을 강화시킨다.

⑨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연령과 경험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Kirby et al, 1994)

⑩ 청소년들이 원하는 성건강 정보와 자료에 바탕을 두고 실시한다.

⑪ 충동적인 성행위를 거절하는 기술을 성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시킨다.

⑫ 포괄적인 보건 교육으로 통합시킨다.

⑬ 또래 학생에 의한 상담, 또래 학생에 의한 지지 교육을 적절한 시기에 활용한다.

⑭ 문헌 고찰을 통하여 효과가 입증된 이론(Theory)과 프로그램을 성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반영시킨다. (Kirby et al, 1994; Jacobs & Wolf, 1995; Haffner, 1996)

3.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 효과 평가 연구에 대한 원칙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평가 연구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성교육의 목표를 단순히 지식과 태도에 두기보다는 행위 변화에 중점을 둔다.

② 무작위로 할당되고 통제된 실험 연구를 통해서 성교육 실시 효과를 평가한다.

③ 장단기 효과를 밝히기 위해서 적절한 추후

연구 기간을 포함시킨다.(Obstfeld & Meyers, 1984; Stout & Rivara, 1989; Kirby et al, 1994; Oakley et al, 1995)

④ 명확히 규정한 독립변수들을 사용한다. 즉, 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수업 시간, 교사, 실시 기간, 포괄성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⑤ 설문 조사시에도 학생들이 참여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수업 시간, 교사, 실시 기간, 포괄성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에 따라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Zelnik & Kim, 1982; Jacobs & Wolf, 1995)

⑥ 비교군이나 대조군(control group)에서 학교 성교육 실시 효과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또래의 영향, 성숙 과정(maturation), 성에 대한 가족의 태도 등과 같은 매개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Jacobs & Wolf, 1995)

⑦ 가능한 한 충분한 크기의 표본 집단을 이용해야 한다.(Kirby et al, 1994)

⑧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개발한다.(Jacobs & Wolf, 1995)

학교 성교육을 실시할 때 각 교사들이 행정력과 지도력을 발휘하고, 불편함이나 당황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상 기술한 원칙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VI. 결 론

오늘날 청소년들에서는 성의 자유해방 의식뿐만 아니라 성적 탈선과 성폭력 등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생아 출산 등의 성도덕과 관련된 문제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AIDS의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각 급 학교

에서 성교육을 실시 강화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교육은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담당하는 것이었으나, 사회와 가정의 교육 기능의 상실로 인하여 학교가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가되어 왔고, 학교 당국에서도 학교가 성교육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성교육은 많은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며, 막상 실시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타 국가의 경우는 학교에서의 성교육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으나 과거 조직적인 소수 집단의 반발로 인하여 학교에서 성교육이 배제 된 경우도 있었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교육 기대 효과를 둘러싸고 과거에 발생했던 논의된 문제들이나, 이러한 논의된 문제들에 대한 실험 연구 결과들과 연구 평가 기준 및 방법론상의 문제점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사실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다시 미래에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 성교육 효과에 대하여 발표한 논문들을 재평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일관성 있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으나, 검토한 연구들 중에서 성관계를 갖는 연령을 늦추어 주거나 피임 방법의 사용, 성위험 행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Social Learning Theory, Social Influence Theory에 이론적인 바탕을 둔 프로그램

둘째, 목표를 좁게 정해서 특정 성위험 행위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셋째, 무책임한 성행위의 위험과 이런 위험 행위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경험 학습 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내면화시키는 방법

넷째, 성행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영향과 압력, 매스컴의 영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

다섯째, 무책임한 성행위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개인의 가치관과 집단의 가치관을 연령과 경험에 알맞게 강화시키는 프로그램

여섯째, 성행위와 관련된 거절하는 기술(communication, negotiation, refusal skill)과 이러한 기술에 대한 확신을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 프로그램(role-playing, written practice) 등이었다.

한편 성교육이 비효과적으로 나타난 프로그램의 특징들은

첫째, 폭넓은 주제, 가치(value) 및 기술(skill) 등을 많이 다루고는 있으나, 무책임한 성행위를 피하는데 필요한 특정 정보, 가치, 규범, 기술들을 강조하지 않는 프로그램이었다. 목표가 많으면 비효과적이었다.

둘째,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표본적인 모델 상황이 적용되었고,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행위 가치와 규범들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학생들이 의사 결정을 하면서 은연중에 배우도록 하는, 의사 결정 모델을 이용한 프로그램들이었다.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면 이러한 효과가 입증된, 잘 설계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교육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로부터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와 관련된 각종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문헌 고찰을 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과서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고, 더욱이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효과를 평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성교육 효과에 대한 문헌 고찰은 외

국의 문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다.

학교 성교육의 발전 과정, 학교 성교육의 시대적인 논의 사항들, 학교 성교육의 기대 효과와 실험 연구 결과들, 성교육 효과 평가 기준 및 방법, 성교육 도입 시의 원칙, 프로그램 개발 상의 원칙, 성교육 효과 평가에 대한 원칙 등에 대해서 외국의 문헌들을 통해서 고찰하고 성교육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ramework을 구조화시키고 효과적인 성교육을 위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학교 성교육 발전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교육부 : 고등학교 성교육 자료, 1993
2. 김한경 : 학교 외의 가정생활 및 성교육, 고등학교 성교육 세미나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1983
3. 문교부 : 성교육 지도 자료: 중, 고등학교 교사용, 1983
4. 부산직할시 교육연구원 : 성교육 학습지도 자료: 고등학교, 1982
5.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 성교육 자료: 교사용, 1983
6.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 새세대 생활관, 성교육 사례집, 어머니의 가르침, 1986
7.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 성교육 학습 지도 자료, 국민학교, 1982
8. 이중환 : 청소년 유해 환경과 청소년 매체, 청소년 유해 환경의 실태와 대책, 서울 YMCA 시민 자구운동본부, 1989
9. 인천직할시 교육연구원 : 성교육 지도자료: 중, 고교용, 1982
10. 전광문 : 우리나라 청소년 성문제 현황, 고등학교 성교육 세미나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1983
11. 최윤식 : 고등학교 성교육 실험 수업 결과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1984
 12. 허판례,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수방법에 대한 접근방법 및 제한점 : 고등학교 성교육 세미나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1983
 13. Albee G., S. Gordon, H. Leitenberg, ed. Promoting Sexual Responsibility and Preventing Sexual Problems,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1983
 14. Avner L. L. : A pilot study: the use of programmed text in sex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Education, Vol. 15, 1972(2), 94 - 101
 15. Berberian R. M., C. Gross, : The effectiveness, of drug education programs: A critical review, Health Education Monography, Vol. 4, 1976, 377
 16. Byrd-Bredbenner C., L. H. O'Connell, B. Shannon, J. Eddy : A nutritional curriculum for health education: Its effect on student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JOSH, Vol. 54 No. 10, 1984, 385 - 388
 17. Cancila C. : Teen pregnancy, abortion, rates highest in U. S., American Medical News, Vol. 29, 1985,(Mar), 15
 18. Cortese P. A. : Education on sexuality: Proceed with caution, JOSH, Vol. 51, No. 12, 1981(Dec), 676 - 677
 19. David K., C. Wise, Challenges for sex education in schools, in K. David, T. Williams, ed., Health education in schools, Harper Education Series, 2nd edi, 1987, 193 - 214
 20. Dawson D. A. : The effects of sex education on adolescent behavior, Family Planning Perspective, Vol. 18, No. 4, 1986, 162 - 170
 21. Donovan C. : Adolescent sexuality: Better, more accessible sex education is needed, BMJ, Vol. 300, 1990(April), 1026 - 1027
 22. Eberst R. M., Proclaiming sexuality education, Vol. 51, No. 11, 1981(Nov), 625
 23. Fraser S. E. : ed. Sex, School, Society, Aurora Publishers, New York, 1972
 24. Furstenberg F. F., Jr., R. Lincoln, J. Menken, ed., Teenage Sexuality, Pregnancy, and Childbearing,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1
 25. Furstenberg F. F., K. A. Moore, J. L. Peterson, Sex education and sexual experience among adolescents, AJPH, Vol. 75, No. 11 1985, 1331 - 1332
 26. Gilbert G., Easy ways of getting into trouble when teaching sex education, Health Education, Vol. 10, 1979, 31 - 32
 27. Goldman R., J. Goldman, Children's sexual thinking, Routledge & Kegan Paul, 1982, 53 - 55
 28. Goodson P., E. Edmundson, The problematic promotion of a abstinence, an overview of sex respect, JOSH. Vol. 64, No. 5, 1994, 205 - 210
 29. Gordon S., The case for a moral sex education in the schools, JOSH, Vol. 51 No. 4, 1981, 214 - 218
 30. Haffner D. W., Sexual health for America's adolescents. JOSH, Vol. 66, No. 4, 1996, 151 - 152
 31. Hale C., S. G. Phillber, The subtle points of controversy: A case study in implementing sex education, JOSH, Vol.

- 48, No. 12, 1978, 586 - 591
32. Hamrick M., D. Crase, Troubled educational enterprise mandates new agenda for school health education, JOSH, Vol. 54, No. 4, 1984, 169 - 170
 33. Hili V., ed., Sex education and the schools, New York, Harper and Row, 1967
 34. Jacobs C. D., E. M. Wolf, School sexuality education and adolescent risk-taking behavior, JOSH, Vol. 65, No. 3, 1995, 91 - 95
 35. Kirby D., L. Short, J. Collins, D. Rugg, L. Kolbe, M. Howard, B. Miller, F. Sonenstein, L. S. Zabin, School-based programs to reduce sexual risk behaviors: A review of effectiveness, Public Health Report, Vol. 109, No. 3, 1994, 339 - 360
 36. Kirby D., School-based program to reduce sexual risk-taking behaviors, JOSH, Vol. 62, No. 2, 1992, 280 - 287
 37. Kirby D., Sexuality education: A more realistic view of its effects, JOSH, Vol. 55, No. 10, 1985, 421 - 424
 38. Kirby D., The effects of school sex educ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SH, Vol. 50, No. 12, 1980(Dec), 559 - 563
 39. Last J. M., Public Health and Human Ecology, Appleton & Lange, 1987, 361 - 362
 40. Marini D., H. James, Beliefs of Indiana public school policymakers on the role of the school in education about sexuality: Its quality, its direction, Health Education, Vol. 14, 1983(Nov, Dec), 4 - 7
 41. McNab W. L.,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sex education-The Nevada experience, JOSH, Vol. 51, No. 4, 1981, 295 - 299
 42. Neutens J. J., Sexuality education in comprehensive school health programs: Surviving the "moral smog", JOSH, Vol. 62, No. 2, 1992, 74 - 75
 43. Nolte A. E., Thoughts on controversy in health education, JOSH, Vol. 54 No. 1, 1984, 45
 44. Oakley A., D. Fullerton, J. Holland, S. Arnold, M. France-Dawson, P. Kelley, S. McGrellis, Sexual health education interventions for young people: a methodological review, BMJ, Vol. 310, 1995(Jan), 158 - 162
 45. Obstfeld L. S., A. W. Meyers, Adolescent sex education: A preventive mental health measure, JOSH, Vol. 54, No. 2, 1984, 68 - 70
 46. Parcel G. S., D. Luttmann, M. P. Meyers, Formative evaluation of a sex education course for young adolescents, JOSH, Vol. 49, No. 6, 1979(Jun), 335 - 339
 47. Penland L. R., Sex education in 1900, 1940 and 1980: An historical sketch, JOSH, Vol. 51, No. 4, 1981, 305 - 309
 48. Pollock M., Planning and implementing health education in school, Mayfield, 1987, 189 - 226
 49. Robertson L., Crash involvement of teen-age drivers when drive education is eliminated from high school, AJP, Vol. 70, No. 6, 1980, 599 - 603
 50. Ryan I. J., P. C. Dunn, Sex education from prospective teachers' view poses a dilemma, JOSH, Vol. 49, No. 10, 1979, 573 - 575

51. Scales P., Barriers to sex education, JOSH, Vol 50, No. 8, 1980(Aug.), 337 - 341
52. Scales P., The new opposition to sex education: A powerful threat to a democratic society, JOSH, Vol. 51, No. 4, 1981, 300 - 304
53. Stout J. W., F. P. Rivara, Schools and sex education: Does it work?, Pediatrics, Vol. 83, No. 3, 1989, 375 - 379
54. Synder E. E., E. Spreitzer, Social correlates of attitudes toward sex education, Education, Vol. 96, 1976, 222 - 225
55. Turner N. H., Demythologizing sex education in Oklahoma: An attitudinal study, JOSH, Vol. 53, No. 6, 1983, 360 - 364
56. Wattleton F., American teens: Sexually active, sexually illiterate, Vol. 57, No. 9, 1987, 379 - 380
57. Welshimer K. J., S. E. Harris, A survey of rural parents' attitudes toward sexuality education, JOSH, Vol. 64, No. 9, 1994, 347 - 352
58. Yaber W. L., Parental opposition to sex education: pretext or re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Education, Vol. 24, 1981(3), 195 - 199
59. Zabin L. S., M. B. Hirsch, E. A. Smith, R. Streett, J. B. Hardy, Evaluation of a pregnancy prevention program for urban teenagers, Family Planning Perspective, Vol. 18, No. 3, 1986, 119 - 126
60. Zelnik M., Y. Kim, Sex education and its association with teenage sexual activity, pregnancy, and contraceptive use, Family Planning Perspective, Vol. 14, No. 3, 1982, 117 - 126

<Abstract>

The Effectiveness of School Sexuality Education

Young Mee Chang · Sea Baick Le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the debates on school sexuality education program have centered on the specific education topics and its in-depth to be taught for different level of students. Many people, on the whole, worried that sexuality education for the adolescents promote irresponsible sexuality activities and that students become more liberal following sex education(in all ways, not just sexually).

At the present time, however, most social leaders agree that school sexuality education program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as an important part of the formal school curriculum. Because they believe that sexuality education programs will be effective to change irresponsible sexual behavior and prevent sexual risk among teenagers. Researches demonstrate that not all school-based sexuality and AIDS education programs are effective, but that some programs are effective.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the present paper reviewed the beliefs and questions which generate discussion and opposition to sexuality education program at the school.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al instruction was also evaluated focused on the reducing specific sexual risk behavior and reinforcement of individual values against sexuality activities. Lastly, this paper proposed several ways and means for effective sexuality education program in general.